

1. 프로그램 개요

【목적】 JENESYS 의 일환으로써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에서 선발된 대학생 등을 초빙하여, '일본의 SDGs 사례 시찰 (Sustainable tourism 와 지역활성화)'라는 테마 아래 각종 시찰, 학교방문, 홈스테이, 테마에 따른 강의 청강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한 이해를 심화함으로써 앞으로의 한일간 상호이해와 신뢰관계증진 기반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 사전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한국의 대학생 등 30 명

초빙 프로그램 (오프라인) 한국의 대학생 등 30 명

【방문지】 사전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도쿄도 (東京都) 30 명

초빙 프로그램 (오프라인) 도쿄도 (東京都), 사이타마현 (埼玉県), 이와테현 (岩手県), 미야기현 (宮城県) 30 명

【일정】

■ 사전학습 프로그램 (온라인) :

7 월 4 일 (화) 프로그램 설명, 사전학습사항 전달, 참가자의 대외 발신

■ 초빙 프로그램 (오프라인) :

7 월 11 일 (화) 나리타국제공항 입국, 오리엔테이션, **【講義】** '최근의 한일관계'

7 월 12 일 (수) **【학교방문 · 교류】** 다이토분카(大東文化) 대학 (히가시마츠야마 캠퍼스)

【시찰】 의인 이수현 현창비를 포함한 신오쿠보(新大久保) 지역 필드워크

7 월 13 일 (목) 이와테현 가마이시시(岩手県釜石市)로 이동, **【강의】** '세계의 지속가능한 관광지 TOP100 (The Top 100 Destination Sustainability Stories)에 5 년 연속으로 선발된 가마이시(釜石)의 Sustainable tourism 사례'

7 월 14 일 (금) **【시찰 · 의견교환】** Sustainable tourism 프로그램 체험①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배우는 리스크에 강한 조직이란?' (현지시찰과 워크숍)

【시찰 · 강의】 Sustainable tourism 프로그램 체험②

'미세 플라스틱과 해양 보전을 생각한다' (바닷물 채취와 가마이시만 지형 조사 및 이와테대학 가마이시캠퍼스에서 바닷물 현미경 분석과 강의)

7 월 15 일 (토) 이와테현 도노시(岩手県遠野市)로 이동

【시찰】 야외박물관 '도노(遠野)전승원', 국가지정중요문화재 「다카젠(高善)여관」

【강의】 '도노(遠野)시의 SDG s 사례', **【교류】** 홈스테이

7 월 16 일 (일) **【교류】** 이와테현 도노시(岩手県遠野市)에서 홈스테이

7 월 17 일 (월) **【시찰 · 강의】** '도노(遠野)시의 SDG s 사례 '흙 프로젝트' (이주자 수용과 지역 활성화 관련 강의, 흙 가공처리센터 및 이주자가 재배하는 흙 농장 현장 시찰)

【시찰】 산리쿠(三陸) 철도 진재학습열차 승차 (가마이시(釜石)역 ⇒사카리

(盛)역),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초 (宮城県南三陸町)로 이동

7월 18일 (화) 【시찰】 미나미산리쿠(南三陸) 지역 피재지 시찰, 오나가와(女川)의 부흥 사례
도쿄로 이동, 성과보고회 (방일 성과 및 귀국 후 활동 계획 발표)

7월 19일 (수) 하네다국제공항 출국

2. 프로그램 기록사진



2023년 7월 11일 【강의】
'최근의 한일관계' (도쿄도내)



2023년 7월 12일 【학교방문·교류】
다이토분카대학 (히가시마츠야마캠퍼스)



2023년 7월 13일 【강의】 '세계의 지속가능한
관광지 TOP100 에 5년 연속으로 선발된
가마이시의 Sustainable tourism 사례'



2023년 7월 14일 【시찰】 '동일본대지진으로
부터 배우는 리스크에 강한 조직이란?' (현지
시찰)



2023년 7월 14일 【시찰·강의】 '미세 플라스틱
과 해양 보전을 생각한다' (채취한 바닷물
을 이와테대학 가마이시캠퍼스에서 분석)



2023년 7월 17일 【교류】 홈스테이 (호스트
패밀리 분들과 함께)

	
<p>2023 년 7 월 17 일 【시찰】 '도노(遠野)시의 SDGs 사례 '흙 프로젝트' (이주자가 재배하는 흙 농장 현장 시찰)</p>	<p>2023 년 7 월 18 일 【시찰】 오나가와(女川)의 부흥 사례</p>

3. 참가자 소감 (발췌)

◆ 한국 대학생

지속가능성과 SDGs, 방재대책을 테마로 한 방일에 걸맞게 알찬 활동들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고 해서 환경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않고 지역민과의 연계, 경제 발전까지도 도모하는 지방도시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우리나라와 달리 단순한 이익뿐만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재건함과 동시에,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이 정말 멋있었다. 만나기 힘든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고,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홈스테이와 대학 방문을 통해 한일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교류하여 너무나 좋은 시간을 보낸 점도 좋았다.

◆ 한국 대학생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가마이시에서 체험했던 '동일본대지진으로부터 배우는 리스크에 강한 조직이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워크샵과 피난 경로 시찰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쓰나미라는 재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제대로 학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워크샵이 없었다면 학생들 스스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제 가마이시 소재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들이 목숨을 건졌던 피난경로가 절대로 정답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짚어 주셔서 생각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게 해주신 부분도 인상깊습니다.

◆ 한국 대학생

모든 프로그램, 이론으로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닌, 실제로 현장을 방문하여 설명을 들으면서 현장감을 생생히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기존에 생각하던 것이 이상으로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 일본 측 소감 (발췌)

◆ 다이토분카대학 (大東文化大学)

코로나 19 를 거쳐 국제교류행사가 부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대학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류 당일에는 두 차례의 토론회를 실시하였는데 주제는 SDGs, 식문화, 서로의 언어를 배우기로 생각한 계기, 음악·드라마·애니메이션 등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명확한 주제를 제시한 토론이 아닌 우선은 서로를 알아보자는 취지로 질문 등을 통해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교류를 돈독히 했다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간단히 언어의 벽을 넘는 것을 직접 보고 솔직히 감동했습니다.

◆ 가마이시 DMC

이번에 한국어로 워크숍 등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인상에 남았다고 말씀해 주셔서 매우 기쁩니다. 관광지역조성, 쓰나미 방재, 해양 마이크로 플라스틱, 다양한 각도에서 체험을 하였는데 어느 화제에 대해서도 참가자 여러분의 질문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마이시는 국내 관광과 관련된 분들의 시찰도 많이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전문 분야가 아니었음에도 날카로운 질문과 배움에 대한 자세에서 제일이었습니다. 저희에게도 자극이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가마이시·산리쿠와 관련될 기회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 도노 야마. 사토. 쿠라시 네트워크 (도노 산. 고향. 생활 네트워크)

이와테현 도노시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홈스테이를 희망하는 가정의 금방 다 차서 몇 달 전부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도노시에서 머무는 것은 한국 학생들에게는 살면서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홈스테이만의 '잘 다녀 오셨어요'라는 말대로 다시 와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5. 참가자의 대외 발신, 보도 기사 등



그리고 바로 후에, 앞선 환영오찬회에서 뒤편 스키 일한교류실장님에게서 '일의 대수의 한일 관계' 라는 강의를 해주셨다.
강의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나 최근 한일관계의 이슈, 앞으로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나가야 할 공동 과제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 및 교류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



신오쿠보역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일본인을 구한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씨의 추모비가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이수현씨의 희생이 일본인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닌 한국과 일본의 국제 교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있고, 일본이 그 희생을 알아주어서 추모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었다는게 굉장히 기쁘고 뜻 깊은 경험이었다.

2023년 7월 11일 (Instagram)
 (방일 첫날에) 스키 일한교류실장님께서 ‘일의대수의 한일관계’라는 강의를 해주셨다. 강의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나 최근 한일관계의 이슈, 앞으로 양국이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공동 과제 등 다양한 한일관계 및 교류에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2023년 7월 12일 (Instagram)
 신오쿠보역 안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일본인을 구하려고 한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씨의 추모비가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꼈었다. 이수현씨의 희생이 한국과 일본의 국제 교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일본이 그 희생을 알아주어서 추모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뜻 깊은 경험이었다.



이번 Cool Japan 리포터 활동의 큰 테마는 두 가지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탐색'과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피해지 시찰'이었습니다.

그 중 제가 오늘 말하고픈 이야기는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진지한 관점'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은 모두가 알고 있을만한 큰 자연재해입니다.



이번 관광에서는 미야기현, 이와테현을 거슬러 올라가며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피해지 시찰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가마이시시, 오나가와 등 지진 피해에 대한 여러 사례와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장소도 많이 가보고, 또 지진피해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 곳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곳은 바로 '미나미산리쿠'였습니다.

2023년 7월 17일 (Instagram)
 홈스테이를 간다고 했을 때 일본어도 잘 못하는 내가 과연 홈스테이 분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 폐를 끼치지 않을지 걱정을 많이 했지만 그 걱정은 홈스테이 어머님을 만나자마자 사라졌다. 우리들을 위해 한국어도 연습해 오시고, 인자한 웃음으로 우리를 반겨주셨다. 홈스테이에서는 농가일이나 가족분들 집안일을 도와드리며 많은 것들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다. 최선을 다해주신 홈스테이 가족분들에게 감사했다.

2023년 7월 18일 (블로그 : 발체)
 이번 Cool Japan 리포터 활동의 큰 테마는 두 가지로,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탐색'과 '동일본대지진 피해지 시찰'이었습니다. 그 중 제가 오늘 말하고픈 이야기는 '동일본 지진에 대한 진지한 관점'입니다. 이번에는 미야기현, 이와테현의 피해지 시찰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가마이시시, 오나가와 등 지진 피해에 대한 여러 사례와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장소도 많이 가보고, 지진피해에서 극복하는 방법을 배운 곳도 있었습니다.

<p>할 수 없었던 리얼한 일본인과의 교류가 다이토분카대학과 홈스테이로 실현되어 굉장히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일본에 대해서 한층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모든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의 생각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수현 씨가 한일관계를 발전시킨 것처럼 다음은 우리들이 앞으로의 한일관계를 위해서 역할을 해 나가고 싶다.</p> <p>【테마에 관한 방일중 발표】</p> <p>SDGs 의 각 사례는 개인적으로 지향하고 있었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도 대단히 참고가 되었다. 동일본 대지진 시찰에서는 자연재해의 위력을 실감함과 함께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부흥하며 어떠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p> <p>【액션플랜】</p> <p>① 블로그 등을 통하여 -방문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호쿠 지방의 매력 -동일본 대지진과 방재교육의 중요성 -일본의 다양한 SDG 사례 -올해의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는 등 한일 교류의 현황과 다양한 교류의 모습 등을 소개한다.</p> <p>② 대학 내 일본인 유학생과 언어교환 등의 교류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학교 안팎의 교류프로그램에 스스로 참가하는 것은 물론 주위의 친구도 동참하게 한다.</p> <p>③ 대학에서 발행하는 매체에 방일단 홍보 기사를 투고한다.</p> <p>④ JLPT 시험에 도전한다.</p> <p>⑤ 한일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 현황을 조사하고 발전방안을 고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다.</p> <p>⑥ 이번 프로그램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유지하여 계속 교류하면서 앞으로의 한일관계의 개선으로 이어 나간다.</p>	<p>속히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한일학생 교류와 홈스테이를 통해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한일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와 문화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양국 젊은이들 간의 교류가 앞으로의 한일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p> <p>【테마에 관한 방일중 발표】</p> <p>동일본 대지진 시찰을 통하여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으며 다양한 SDGs 사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자신의 고장을 사랑하는 자세와 노력을 느꼈다. 특히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계속 살아갈 곳을 앞으로도 따뜻한 곳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느낄 수 있었다.</p> <p>【액션플랜】</p> <p>①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이와테현과 미야기현에서의 시찰 내용 -일본의 지속가능한 관광과 DMO -다이토분카대학에서의 교류내용 -JLPT 시험정보 -JENESYS 사업과 참여에 대한 호소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올린다.</p> <p>② 대학 내 일본인 유학생과의 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한다.</p> <p>③ 이번 방일의 모습을 카드뉴스나 포토매거진으로 만들어 소개한다.</p> <p>④ 다양한 매체에 기사 투고</p> <p>⑤ 대학 내 프로그램을 통한 일본 유학</p> <p>⑥ 다이토분카대학에서 교류한 학생과의 관계 유지</p>
---	--

実施団体名：公益財団法人日韓文化交流基金